

NICE평가정보 (030190.KQ)

금융 빅데이터 시장의 개화를 기다리며

소위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금융 데이터 사업 도입 및 데이터 3법 개정 시 NICE평가정보는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미국 사례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금융 데이터 산업은 여전히 잠재력 높은 산업. 국내 M/S 독보적 1위인 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금융 빅데이터 산업 육성의 최대 수혜주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이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 중.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NICE평가정보와 같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의 성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 전문기관 관련 법적근거 마련되면, 금융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여지가 생김. 그리고 신용정보기관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NICE평가정보는 국내 기업 중 개인 신용 데이터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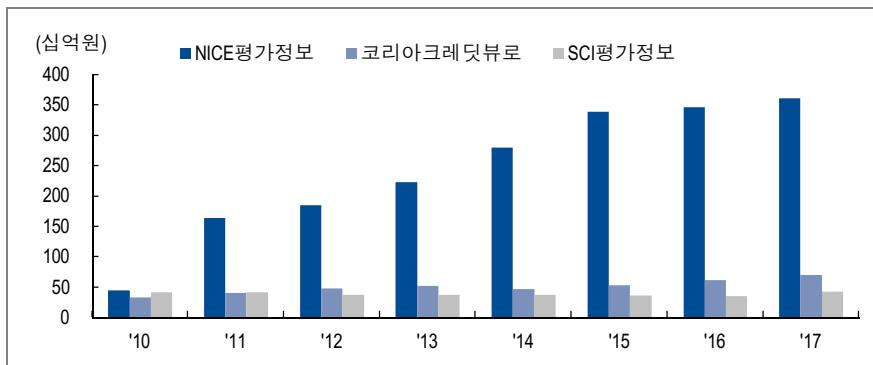
NICE평가정보는 국내 CB(신용평가)업에서 독보적 1위로 2, 3위권 사업자 대비 4배 이상 규모가 큼. 영업이익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이며 이는 데이터 산업 특성 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성장 잠재력 대비 밸류에이션 저평가 판단

비교할 만한 기업이 국내 상장사 중에는 없어 글로벌 동종기업인 Experian, Equifax, Transunion의 평균 PER과 비교. 2019년 NICE평가정보의 PER은 16.1배에 불과해 글로벌 기업 대비 40% 할인 거래 중

국내 CB업의 경우 GDP 규모 대비 성장여력이 아직 충분히 높고 신용정보법 등 거시적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어 오히려 잠재 성장률은 타 글로벌 기업 대비 큼

NICE평가정보 압도적인 시장 지위 보유



자료: 각 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any Note | 2019. 2. 26

Not Rated

현재가 ('19/02/22)

10,250원

업종	기타서비스
KOSPI / KOSDAQ	2,230.50 / 743.38
시가총액(보통주)	622.3십억원
발행주식수(보통주)	60.7백만주
52주 최고가 ('18/06/12)	12,900원
최저가 ('18/03/13)	8,730원
평균거래대금(60일)	1,301백만원
배당수익률(2019E)	1.28%
외국인지분율	29.4%

주요주주	
NICE홀딩스	43.0%
Mawer Investment Management Ltd. 외 3인	5.0%

주가상승률	3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수익률 (%)	-12.8	4.6	8.9
상대수익률 (%)	-18.7	10.6	27.5

	2017	2018E	2019F	2020F
매출액	360.4	375.9	392.1	408.9
증감률	4.3	4.3	4.3	4.3
영업이익	42.6	45.8	50.8	55.0
영업이익률	11.8	12.2	13.0	13.4
(지배지분)순이익	30.7	34.8	38.8	42.1
EPS	505	573	638	694
증감률	8.3	13.5	11.4	8.8
PER	17.2	19.1	16.1	14.8
PBR	3.1	3.4	2.7	2.4
EV/EBITDA	8.6	10.5	8.5	7.4
ROE	18.8	18.8	18.2	17.2
부채비율	36.8	33.3	30.1	27.3
순차입금	-85.7	-118.6	-153.3	-190.2

단위: 십억원, %, 원, 배

주: EPS, PER, PBR, ROE는 지배지분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Analyst 백준기

02)768-7541, jack.baek@nhqv.com

RA 장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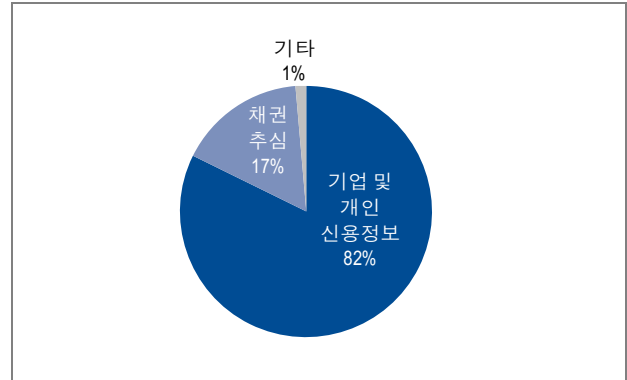
02)768-7083, jangjaeho@nhqv.com

기업개요

- NICE그룹의 주력 자회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5년 설립. 현재 본사 기준으로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정보 사업을 영위
- 최근 10년간 한번도 역성장이 없었고 이는 동사가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방증
- 현재 최대주주는 NICE홀딩스로 42.99% 지분 보유. 외국인 자금 지속 유입되면서 현재 외인 지분 29%

제품 및 매출비중

-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CB(Credit Bureau) 사업과 Kisline 등 기업 정보 사업에서 안정적 캐시카우를 확보
- 약 17%의 매출은 자회사 나이스신용정보의 채권추심 부문에서 발생. 나이스신용정보는 성장률이 높지 않으며 3~ 5%대의 영업이익률을 시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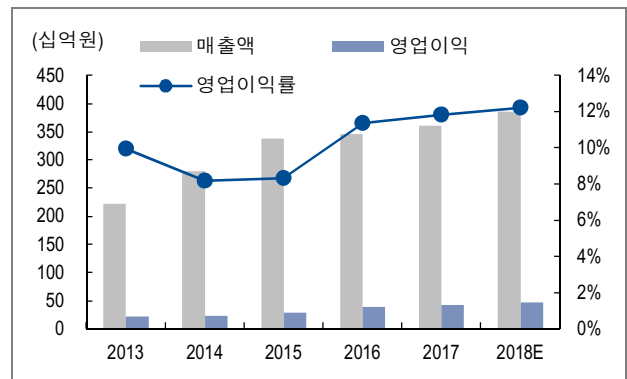


주: 2018년 3분기 기준

자료: NICE평가정보,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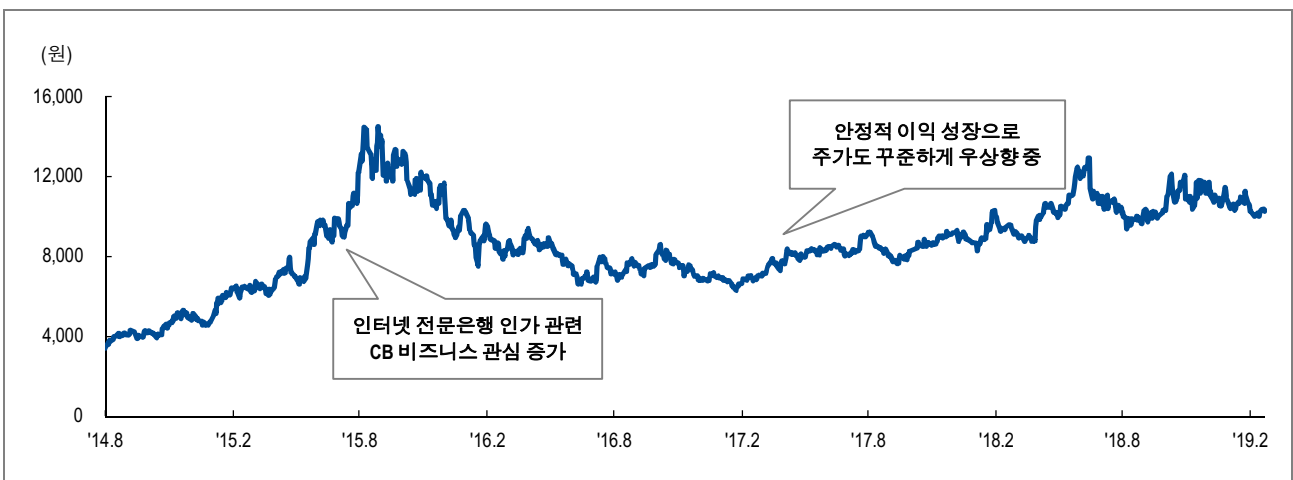
영업 실적 추이

- 2017년 매출액 3,604억원, 영업이익 426억원
- 2018년 매출액은 3,759억원, 영업이익은 458억원 추정
- 금융 빅데이터 수요 성장으로 5% 이상의 Organic 성장이 나오고 있음. 데이터 비즈니스 특성 상 매출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에서도 레버리지 효과 발생



자료: NICE평가정보,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과거 주가 추이 및 주요 이벤트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 CB 비즈니스는 금융 빅데이터 산업 육성으로 성장 잠재력 큰 사업

아직 국내 CB업의 추가 성장여력 높다

미국의 Experian, Equifax, Transunion 등 메이저 CB(신용평가) 3사의 미국 내 매출액은 9조원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NICE평가정보의 매출액에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 평가정보의 추정 매출액을 더해도 4,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의 GDP는 미국의 1/12 수준으로 이를 감안해보면 한국 CB 산업의 잠재적인 성장 여력은 8,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수준에서 2배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들 해외 기업과 같은 거대 금융 빅데이터 기업이 없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작년부터 나타난 가운데 올해 3월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되어야 본격적으로 금융 빅데이터 산업이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NICE평가정보가 가장 오랜 사업자이자 1위 사업자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3법과 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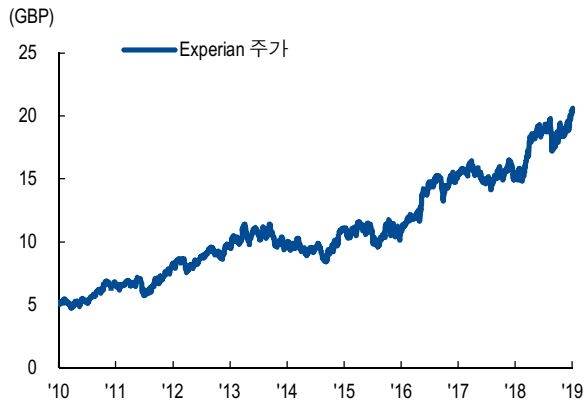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발맞추어 김병욱 의원 등 13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정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국회 계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처리를 위해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 통과를 촉구 중이다.

2017년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GDP 대비 CB사업 규모가 미국보다 현저하게 작은 이유가 설명되는 부분이다.

금융 데이터는 업태별(은행, 카드, 보험 등)로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가공하기 용이하며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다. 더욱이 이는 개인의 소비 성향과 형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반영해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금융정보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한 CB사들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활용 방안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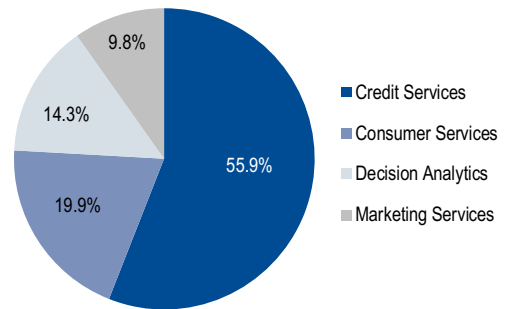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9월 이후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조사업무 등 일부 업무 외 영리목적 검열이 금지되어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방안은 CB사가 해외처럼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NICE평가정보가 금융데이터를 활용, 가공,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 Experian 주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Experian은 크레딧뷰로 매출의 절반 이상 창출



자료: Experia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업적 활용 가능해짐



자료: 금융위원회, 언론 자료 정리

잠재 성장성 높은 시장에서 동종 기업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어 저평가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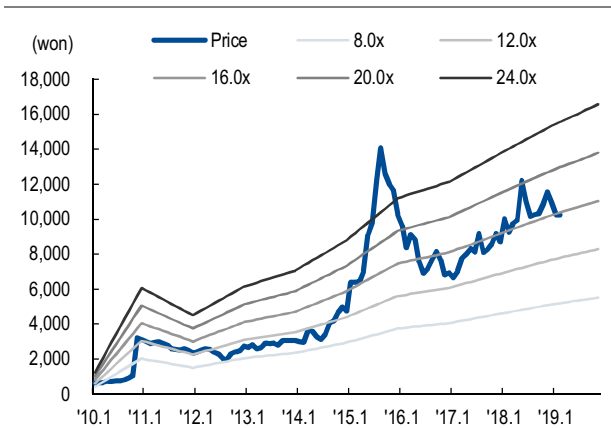
2019년 PER 16.1배,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 저평가

NICE평가정보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업력을 보유한 CB사라는 점이다. 동사가 보유한 누적된 양질의 데이터는 매출의 지속 가능성과 결부된다. 핀테크가 진화하고 비대면 금융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금융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NICE평가정보는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작년을 기점으로 NICE홀딩스의 배당정책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력 자회사인 NICE평가정보 또한 주주친화적 배당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배당성향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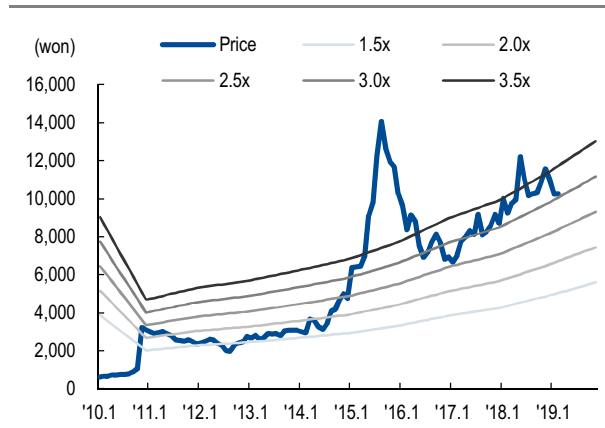
2019년 기준 예상 PER은 16.1배로 글로벌 금융 데이터 활용 기업 대비 40% 할인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은 금융 데이터 활용 확장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 이와 같은 높은 할인율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그림4. Forward PER Band



자료: Wisef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Trailing PBR Band



자료: Wisef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1. 동종 기업 비교 밸류에이션 테이블

(단위: 원, 달러, 십억원, 백만달러, %)

기업명		NICE 평가정보 (030190 KQ)	Experian (EXP LN)	Equifax (EFX US)	Transunion (TRU US)
주가 (2/22)		10,250	26.9	110.8	63.5
시가총액		622.3	24,450.9	13,368.7	11,816.6
매출액	2017	360.4	4,335	3,362	1,934
	2018E	375.9	4,662	3,412	2,317
	2019F	392.1	4,861	3,489	2,618
영업이익	2017	42.6	1,075	832	465
	2018E	45.8	1,095	448	513
	2019F	50.8	1,324	710	904
순이익	2017	30.7	866	587	441
	2018E	34.8	815	300	277
	2019F	38.8	838	500	363
PER(x)	2017	17.2	23.6	26.6	38.6
	2018E	19.1	23.4	19.5	37.8
	2019F	16.1	26.6	19.4	23.9
PBR(x)	2017	3.1	7.2	4.5	5.8
	2018E	3.4	7.5	3.6	5.6
	2019F	2.7	9.0	3.9	5.5
ROE(%)	2017	18.8	34.2	20.1	28.5
	2018E	18.8	31.0	9.5	15.3
	2019F	18.2	33.9	16.9	21.7

주: NICE 평가정보는 당사 추정치 기준, 나머지 기업은 컨센서스 기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